

동아꿈나무재단 출연금 현황

성명	기탁 연월	횟수	출연금
오달근	1971년3월~1987년10월	11	3억9597만9816
오광수	1974년3월~1977년12월	4	1억7719만2602
오창훈	1977년3월~1984년8월	7	18억72만3406
주해호	1977년9월~1994년11월	2	4609만9679
김성돈	1972년4월~1987년3월	3	6059만9842
김중기	1978년6월~1994년1월	5	1억9573만5142
허승욱	1978년11월~1985년12월	2	1468만9666
이주현	1980년11월	1	4484만4121
박영실	1980년4월~1993년2월	7	1억780만2152
이경우	1983년12월~1997년12월	15	6775만1029
김재원	1984년5월~1986년2월	3	2282만0492
이은복	1985년4월	1	5245만0438
이준성	1985년12월~1986년12월	2	7743만5397
최국희	1985년5월~1986년4월	2	1531만9206
최재성	1985년5월	1	3732만3898
동아일보사	1985년12월~1995년12월	2	5억
김태욱	1985년6월~2009년6월	21	4469만3236
김성식	1985년8월	1	369만5884
고영철	1985년5월	1	207만4657
김영창	1984년12월~2004년1월	12	440만3851
권희중	1985년9월	1	30억
윤영근	1985년8월	1	389만1689
홍병우	1985년10월	1	71만1242
카익나즈 부인회	1986년1월	1	34만7963
강영환	1986년2월	1	34만5081
김종은	1986년3월	1	68만887
김인배	1986년4월	1	3439만5128
윤상욱	1986년5월~1995년12월	12	5659만6979
이준주	1986년6월	1	334만4296
김경석	1986년8월	1	328만6770
박길호	1986년8월	1	32만9821
최연우	1986년10월	1	3274만5521
오주홍	1986년12월	1	3199만331
전용찬	1986년12월	1	3199만331
박길순	1987년2월	1	342만3177
남재호	1987년3월~1992년1월	3	1766만751
김태성	1987년4월	1	1534만5537
김해정	1987년4월	1	307만7388
이종훈	1987년5월~2002년5월	16	8045만3542
백신연대	1987년6월	1	34만3469
산서회	1987년9월~1998년11월	14	438만9770
(88)연수회	1987년11월	1	40만1409
김희실	1988년1월	1	401만5472
염근호	1988년3월~2001년12월	15	762만5384
이명(馬山)	1978년3월	1	422만513
한동철	1987년3월	1	32만7004
이종진	1980년11월	1	282만414
윤현수	1984년4월	1	135만9539
이영민	1985년7월	1	729만139
이명(연인)	1985년12월~2008년12월	20	5649만8318
이명(동우동)	1987년2월	1	156만6450
김복희	1988년3월~2008년3월	5	661만9917
김세훈	1988년8월	1	385만9843
조기순	1988년11월	1	367만5934
김상빈	1989년4월	1	3539만5700
강장오	1989년5월	1	694만5269
김정윤	1989년5월~1991년8월	2	273만8881
원철호	1989년6월	1	358만5474
최병순	1989년10월	1	20만3300
최태성	1989년10월	1	3312만149
인수명	1989년11월~1995년8월	13	518만5318
임동선	1989년11월	1	323만7761
현재현	1989년11월	1	1153만2921
김삼구	1989년12월	1	330만4678
신낙천	1989년12월~1991년10월	2	591만7061
김윤철	1990년2월~2009년6월	190	4억9887만7048
홍희희	1990년2월	1	321만8969
대영호	1990년3월	1	318만7348
정태중	1990년4월	1	317만8886
이명(정주)	1990년4월~1995년6월	2	471만5247
이문세	1990년4월	1	317만8886
서갑수	1990년4월	1	15만3131
김주임	1990년4월	1	318만8760
한윤구	1990년4월~1992년4월	3	375만4807
황민하	1990년4월	1	6만1252
신희정	1990년4월~1997년4월	6	158만2904
전일정희	1990년4월~1994년4월	2	53만4549
호암라이프 온스	1990년5월~2006년4월	9	841만99262
이명(영동)	1990년5월~1996년8월	3	407만7910
이종관	1990년5월	1	66만1487
김이서	1990년8월~1991년9월	2	228만8643
박동규	1990년11월	1	21만3446
한국인턴 단위	1990년12월	1	207만1528
박수현	1990년12월	1	102만3902
박희서	1990년12월	1	414만6297
김광성	1991년1~7월	2	167만9920
이명(계보동)	1991년1월	1	41만3217

“가슴에 묻은 아들 그리울때면 틴틈이 돈 모았죠”

세차례 성공 낸 이찬우 씨 “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게 되기를”

아들은 오랫동안 몸이 아팠다. 피부 쪽 질병이라고만 했다. 큰 병원 의사들도, 오래 공부했다는 학자들도 아들의 정확한 병명을 얘기하지 못했다. 아버지는 장남을 살리려고 ‘별짓’을 다했다.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갔다. 약이란 약은 다 먹여봤다. 하지만 생애갈던 아들은 아속하게도 1993년 부모의 품을 먼저 떠났다. 한창 미팅도 하고 캠퍼스를 누볐어야 할 동국대 국문과 재학시절 그렇게 사망했다.

이찬우 씨(74·서울 용산구)는 아들 시신

을 서울대병원에 기증했다. “앞으로 아들과 같은 병을 앓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. 가족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시신을 기증하고 돌아왔죠.” 병원에서는 장례비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. 아들의 영혼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듯했다. 양복 안 주머니에 돈을 품은 이 씨는 “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돈은 반드시 의미 있게 쓸 것”이라고 다짐했다. 그래서 찾은 곳이 동아꿈나무 재단이었다.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줄도록 도움

을 주고 싶었다. 아들에게 용돈을 준다는 생각으로, 또 다른 아들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.

그 후 11년이 흘렀다. 2004년 어느새 훌쩍 커버린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갔다. 결혼식장에서도 이 씨 가슴 한구석에는 기쁨 못지않은 허전함이 배어 있었다. 큰놈이 살아 있었으면 벌써 장가를 가서 손자 손녀를 안겨줬을 나이었다. 이 씨는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1000만 원을 재단에 한 번 더 기탁하기로 했다. 둘째 아들도 선뜻 기부에 동의했다.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가슴속에 묻은 큰

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해마다 커졌다. 아버지 아들 그리울 때마다 돈을 모았다. 지난해 12월 이 씨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틴틈이 모은 1000만 원을 들고 재단을 찾았다. 당시 기금을 전달받은 동아꿈나무재단 관계자는 “돈을 맡기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볍다고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”며 “한파 속에서도 직접 돈을 들고 온 이 씨의 모습에 재단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다”고 전했다.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“얼마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나를 세워둔 기부 목표액이 있다”며 “더 많은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만의 목표를 채워 나갈 생각”이라고 말했다.



지난해 6월 동아꿈나무재단이 주최한 '올름도 독도 자연생태탐방' 행사에 참가한 외국 학생들이 울릉도에서 환한 얼굴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.

사진 제공 동아꿈나무재단

기탁자 288명 - 기금 137억 원으로 늘어

올해 350여명에 장학금 전달기로

1985년 독지가들의 정성으로 첫발을 내디딘 동아꿈나무재단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. 출범 당시 3억 원으로 출발한 재단 장학금금은 올해 130여억 원으로 늘었다. 첫 기금은 1971년 제주 서구포에서 김갑열 농장을 운영하던 실장우 오달근 씨(1985년 작고)가 보내온 100만 원. 오 씨는 당시 “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는 2020년부터 거대한 영재들을 위해 써 달라”며 돈을 기탁했다. 이후 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정

권의 광고담임 당시 독자들이 격려광고금으로 보내온 1억2000만 원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재단 출연금에 포함시켰다. 1985년에도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. 같은 해 독자가 권희중 씨가 30억 원 상당의 토지재산을 내는 등 총 5회에 걸쳐 증자하면서 현재 재단 출연금은 137억 원 가까이 늘어나는 상태다. 이달 현재 기탁자는 총 288명이다.

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형편이 어려운 중 고교생과 대학생 354명에게 총 2억38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. 필요한 책과 참

고서를 살 수 있도록 전국 8개 학교 및 교육기관에도 2억513만 원을 지원했다. 복지학교 책 보내기 사업, 농아인 야구대회 지원, 신체장애인 자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계층 지원 사업에 1억 원가량을 썼다. 동아신문에 당선자 등에게 학술연구비로 4000만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. 재단은 올해 장학금 지급 대상을 350여 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장학금 액수는 소폭 늘려 2억8500만 원을 쓸 예정이다. 전체 사회사업비로는 8억 5000만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. 이창남 동아꿈나무재단 국장은 “재단에 여부가 생기는 대로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김지현 기자 jhk85@donga.com

성명	기탁 연월	횟수	출연금
이두환	1991년1월	1	206만4991
백영희	1991년2월	1	2378만3501
이진호	1991년2월	1	266만1234
이보름	1991년2월	1	266만1294
이우수	1991년2월	1	172만9527
이윤영	1991년2월	1	172만9527
곽인수	1991년4월	1	26만4386
원철호	1991년4월~1994년4월	3	672만2749
김재하	1991년4월~1999년1월	6	369만25115
이용재	1991년4월~2002년2월	11	2475만1715
쌍용옥동회	1991년5월	1	891만1247
이귀모	1991년5월~1994년1월	7	486만8148
김은산	1991년6월	1	258만3955
원봉삼	1991년6월~1992년2월	2	2942만4142
문용희	1991년7월	1	76만4066
백경중	1991년7월	1	25만4442
성명(대상)	1991년6월	1	258만1337
이상우	1991년9월	1	25만54
우성영	1991년9월	1	739만2609
송홍명	1991년12월	1	48만6753
손덕희	1991년12월~1997년8월	6	3374만20193
신수민	1991년12월~2006년11월	3	52만4841
문창욱	1992년3월	1	236만2182
홍정식	1992년4월~1994년12월	2	1195만7310
오세천	1992년5월	1	222만9958
이정대	1992년7월	1	229만5498
이정자	1992년7월~2008년12월	6	2104만2206
이명(남)	1992년7월	1	1037만2652
최상욱	1992년8월	1	206만1684
최상철	1992년8월	1	44만1008
신경우	1992년9월	1	219만4417
이명(우부)	1992년9~12월	2	332만6838
원희선	1992년10월	1	22만2876
김동수	1992년11월~2006년11월	5	177만26746
이춘욱	1992년11월	1	42만5687
한성택	1992년12월	1	21만774
김영보동선	1992년12월	1	81만6460

성명	기탁 연월	횟수	출연금
김정수	1993년1월	1	181만6502
박희태	1993년1월	1	54만123
김진재	1993년1월	1	47만268
김원식	1993년1월	1	172만9527
노대현	1993년2월	1	172만9527
고영철	1993년2월	1	35만7240
안윤정	1993년3월	1	354만8658
연업	1993년3월~1994년3월	2	172만5828
이공근	1993년4월	1	170만7601
노미나	1993년6월	1	67만2954
이상재	1993년6월~2004년12월	2	1253만7652
김진성	1993년7월~1994년12월	4	842만5879
김성진	1993년7월~2009년3월	14	3214만6685
최초진	1993년9월	1	16만2692
허남욱	1993년9월	1	48만4599
원광순	1993년10월~2007년11월	15	1650만2202
양승	1993년10월~1994년4월	2	87만4005
오홍선	1993년12월	1	156만4477
백박량	1994년2월~2006년2월	3	385만1107
김광욱	1994년3월	1	4280만1967
강승호	1994년4월	1	179만1647
전민주	1994년4월	1	89만2973
최봉식	1994년4월~1995년5월	9	310만4720
신영욱	1994년4월~1995년5월	2	166만8020
박환철	1994년5월~1995년4월	2	1316만7366
김금주	1994년6월~2001년7월	2	286만2073
장광진	1994년12월~1995년5월	8	328만5796
문화서서	1994년7월	1	342만422
이병희	1994년7월	1	17만3395
백경민	1994년9월~11월	2	64만9781
신기선	1994년11월~2001년11월	4	114만974
이명	1994년12월~2009년6월	138	1144만7348
홍현준	1994년12월	1	326만1610
경223-3-3 대우건설	1995년1월	1	60만3079
이경훈	1995년9월	1	239만1461
현부성	1995년9월	1	1627만4969
정현우	1995년11월	1	80만5717

성명	기탁 연월	횟수	출연금
허필수	1995년2월	1	1982만1908
권애국	1995년4월	1	47만8534
안복순	1995년4월	1	47만268
한태신	1995년9월	1	106만3465
김정기	1995년9월	1	75만1751
경고교 3-6 대우건설	1995년12월	1	82만1077
동아미래 학술연구회	1996년3월~2008년11월	2	2081만9356
김성국	1996년4월	1	12만4735
생태재단	1996년4월	1	37만4181
한창선	1996년4월	1	726만1906
고우석	1996년8월	1	723만9466
석상득	1996년11월	1	419만2411
경고교 3-6 대우건설	1997년1월	1	69만153
이명(정주)	1997년1월	1	40만2993
대한수산	1997년2월	1	134만3313
조성현	1997년4월	1	13만1699
박형방	1997년4월	1	65만8493
김우일	1997년6월~2002년9월	6	2150만8336
정경희	1997년7월	1	127만7569
김택만	1997년10월	1	24만7770
박노현	1997년11월	1	61만2509
윤광식	1997년11월	1	12만2501
경고교 3-5 대우건설	1998년2월	1	68만9486
홍성준	1998년2월	1	227만4934
노유나	1		